

第9回日中韓観光大臣会合共同宣言

日本国、中華人民共和国、大韓民国の観光大臣は2019年8月30日、仁川広域市で「観光を通じた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促進」、「観光を通じた北東アジア地域の包摂的成長実現」、「観光を通じた北東アジア地域の未来先導」という議題の下、第9回日中韓観光大臣会合を開催した。

本会議では、これまで8回の観光大臣会合を通じて合意した共同理念を基に、3国間の観光協力を拡大、強化するための実質的方策を模索した。特に長期的な観点から、日中韓3国間の観光協力を通じて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を促進し、包摂的成長を実現する一方、観光を通じて北東アジア地域の未来を先導するためのビジョンを提示し、これを実現するための具体的協力案について合意した。

また、日中韓の観光大臣が合意した内容が実質的な実を結ぶことにつながるよう、第9回日中韓観光大臣会議の付随行事として開催された「日中韓地域観光ジョイント事業」および「日中韓観光未来世代フォーラム」を歓迎すると共に、今後も日中韓観光協力を促進していくための取組を持続的に推進していくことで合意した。

日中韓3国は観光協力の重要性に対する認識を基に、協力と共生の関係を通じ発展的な未来を切り開いていく。

そのために3国が合意した観光協力案は次の通りである。

1. 観光を通じた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促進

- (1) 日中韓3国は、観光が経済発展はもとより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に貢献できるように、相互互惠と協力の精神を強固にし、戦略的で体系的な協力体制を構築する。
- 2) 3国は第7回日中韓観光大臣会合で掲げた3000万人の目標を既に達成し、その上で、日中韓国民の相互信頼を深める活発な観光交流を推進する。

- (3) また、日中韓3国間の確固たる観光協力を通じて北東アジアの平和を促進し、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ことに合意し、そのために域外観光市場誘致を促進するための協力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Visit East Asia Campaignの持続的な推進等を通じ、協力事業を行う。
- (4) 特に2018~2022年の日中韓3国のスポーツメイベント開催を契機に、スポーツ交流協力強化を通じて域外市場を対象に日中韓の連携観光商品の開発と共同広報マーケティングを積極的に推進することで、北東アジア地域を全世界の「平和およびスポーツ観光の拠点」として育成する。

2. 観光を通じた北東アジア地域の包摂的成長実現

- (1) 日中韓3国は、障害者、高齢者、乳幼児同伴家族、妊婦などの旅行者にとっては、依然として旅行がしやすい状況であるという点で一致し、誰もが安心して楽しむことのできる旅行環境整備に向けて共同で努力し、そのための政策および優秀事例を共有する。
- (2) 3国の地方の観光活性化のために韓国ではじめて開催された「日中韓3国地域観光ジョイント事業」を歓迎し、地域観光の活性化のための努力を持続的に行う。
- (3) また、日中韓3国の地方観光地間の円滑な交流のために、地方航空路線の拡大、地方空港出入国時の利便性向上、クルーズ船の就航拡大等、観光インフラ拡充のための努力を強化する。
- (4) 日中韓3国は、観光産業の持続可能な発展を図るためには観光産業の中核人材の育成を通じて良質な雇用を創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一致し、そのために観光専門人材育成の優良事例を共有し、青年層の観光人材育成のための交流協力を強化する。
- (5) また、観光が経済的成長だけでなく、社会的成長にも貢献し持続可能な発展が実現するように公正な観光取引環境作りを通じて観光産業の相互成長のために協力する一方、消費者の保護及びオーバーツーリズム問題対応と関連した優良事例を共有する。

3. 観光を通じた北東アジア地域の未来先導

- (1) 日中韓3国は、第4次産業革命と呼ばれる最近の「新技術」発展と「観光」との融合は観光発展のための新しいチャンスになるという点で一致し、日中韓3国間「新技術+観光」融合モデルの発掘および観光ビックデータの分析事例を互いに共有する。
- (2) また、観光ベンチャー企業など観光産業に参入する新ビジネスモデルに関する情報を共有し、観光産業を拡大させ競争力を強化するために共同で努力する。
- (3) さらに3国間の観光革新が増大されるよう観光ベンチャー企業間の交流を促進する一方、第4次産業革命に備えた観光ベンチャー企業の育成策、観光分野の新規職種育成などに対する情報を共有する。
- (4) 日中韓3国は、3国間の観光交流促進を図るために、観光と情報通信技術(ICT)の融合を通じた旅行者サービスの高度化を推進すべきだという点で一致し、そのためにスマート観光環境作りを通じた観光旅行の利便性向上のための3国間の協力を強化する。
- (5) 日中韓3国は、3国間の観光協力を強固にし、持続的な観光発展のためには観光未来世代の育成が最優先課題の一つだという点で一致し、今年韓国で実施した「日中韓未来世代フォーラム」を歓迎し、日中韓の観光未来世代の交流を促進するための努力を持続的に行う。
- (6) さらに、観光未来世代の交流促進のための観光関連教育及び研究機関間の交流を促進し、それを通じて3国間で観光研究成果及び情報が共有できるよう、3国の観光当局が積極的に協力する。

4. その他

- (1) 日中韓3国は、各国の観光当局実務者間で第9回仁川宣言合意事項の優良事例を共有し、観光大臣会合を通じて形成されたコンセンサスを基に観光協力の持続的発展を図る。
- (2) 3国は日中韓間の観光協力促進に向け、日中韓協力事務局(TCS)との協力関係を強化する。

(3) 3国は観光客の安全と関連した情報を透明に公開する。

(4) 3国は観光と文化の融合発展という時代の流れに沿った韓国の日中韓観光大臣会合及び文化大臣会合の連携のための努力を歓迎する。

(5) 3国は2020年日本において、「第10回日中韓観光大臣会合」を開催することで一致した。

本声明は、2019年8月30日大韓民国仁川広域市にて日本語、中国語及び韓国語で作成され、3種とも同等の効力を有する。

日本国

国土交通大臣

石井啓一

中華人民共和国

文化旅游部部長

雋树刚

大韓民国

文化体育観光部長官

朴鳴宇

제9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공동선언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광장관은 2019년 8월 30일 인천광역시에서 ‘관광을 통한 동북아지역 평화 증진’, ‘관광을 통한 동북아 지역 포용적 성장 실현’, ‘관광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더 나은 미래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지난 8차례에 걸친 관광장관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공동이념을 토대로 3국간 관광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3국간 관광협력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과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한편, 관광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또한 한중일 관광장관이 합의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중일 지역관광이음사업’ 및 ‘한중일 관광 미래세대 포럼’ 개최를 환영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한중일 관광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일 3국은 관광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통해서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3국이 합의한 관광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을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 증진

- (1) 한중일 3국은 관광이 경제발전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호혜와 협력의 정신을 굳건히 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2) 3국은 제7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제기한 3,000만명의 목표를 달성한 위에, 한중일 국민들의 상호 신뢰를 심화시키는 활발한 관광교류를 추진한다.
- (3) 한중일 3국간 굳건한 관광협력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역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Visit East Asia Campaign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4) 특히 2018~2022년 한중일 3국 스포츠 메가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역외시장을 대상으로 한중일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공동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을 전 세계 ‘평화 및 스포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2. 관광을 통한 동북아 지역 포용적 성장 실현

- (1) 한중일 3국은 장애인, 고령층,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의 여행객에게는 여전히 여행하기 불편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 (2) 3국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지역 관광지 이음사업’ 개최를 환영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3) 또한 한중일 3국 지역 관광기간 원활한 교류를 위해 지방 항공노선 확대, 지방공항 출입국 편의제고, 크루즈선 취항 확대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4) 한중일 3국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를 위해 관광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청년층 관광인재양성을 위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5) 또한 관광이 경제적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에도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관광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관광소비자 보호 및 오버투어리즘 문제 대응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3. 관광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더 나은 미래 구축

(1) 한중일 3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최근의 ‘신기술’ 발전과 ‘관광’과의 융합은 관광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중일 3국간 ‘신기술+ 관광’ 융합 모델 발굴 및 관광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2) 또한 관광벤처기업 등 관광산업에 진입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3) 아울러 3국간 관광혁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광벤처기업 간 교류를 증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대비 관광벤처기업 육성정책, 관광 분야 신규직종 육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4) 한중일 3국은 3국간 관광 교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과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한 여행자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여행 편의 제고를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한중일 3국은 3국간 관광협력을 굳건히 하고 영속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관광미래세대 육성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 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한국에서 실시한 ‘한중일 미래세대 포럼’을 환영하며, 한중일 관광미래세대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6) 아울러 관광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관광 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3국 간 관광연구 성과 및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3국 관광당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기타사항

- (1) 한중일 3국은 각국의 관광당국 실무자들이 제9회 인천 선언 합의사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장관회의를 통해서 형성한 공감대를 토대로 관광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 (2) 3국은 한중일 간 관광협력 증진을 위해 한중일협력사무국(TCS)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 (3) 3국은 관광객 안전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 (4) 3국은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른 한국의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및 문화장관회의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 (5) 3국은 2020년 일본에서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본 성명은 2019년 8월 30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일본국
국토교통성대신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장
